

일본 대학에서 쓰이는 한국어 입문 교재의 문법 항목에 대하여

이 안구(岡山大学教育推進機構)*

A Study on the Elementary Grammar Items of Introductory Korean Textbooks for University Students in Japan

Ankoo LEE

(Institute for Promotion of Education and Campus Life, Okayama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a basic study to develop an integrat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universities in Japan, aimed at building social relationships. In order to propose an integrated learning model that combines activities for social relationships and language items as communication tools, I examined the grammar items in introductory Korean textbooks commonly used in Japanese university classes, comparing them with two standards for assessing achievement i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introductory Korean textbooks used in universities of Korea, America and China.

Keyword: Introductory Korean textbooks for university students in Japan, Elementary grammar items of Korean language, Native Japanese learners of Korean

* 본 연구는 JSPS 科研費 JP18K00870 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1. 들어가며

본고는 일본의 대학 수업에서 한국어 학습 항목과 연계하여 사회적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대학에서 많이 쓰이는 한국어 입문 교재의 문법 항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대학의 한국어 입문 수업은 보통 90 분 수업을 주 1 회 혹은 2 회, 30 주동안 이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주 1 회 수업은 연간 45 시간, 주 2 회 수업은 90 시간을 학습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2000 년대 이후 한국어 학습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대학이 많아졌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재들이 출판되었다. 일본의 한국어 교재를 검토한 선행 연구로는 하세가와 유키코·이수경(2002), 永原歩·尹亭仁(2012), 오고시 나오키(2016)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실제로 어떤 교재들이 대학 수업에서 많이 쓰이는가 하는 점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 또한 문법 항목을 어떤 순서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어 초급 문법 항목의 도입 순서나 위계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김유정(1998), 김제열(2001), 민현식(2009)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어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한국어 교육 일반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점에서 일본의 대학 수업이라는 학습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입문 교재의 문법 항목을 검토함에 있어서 참조할 만한 것으로는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하 <국제>로 표시),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되는 한글 능력 검정 시험 대비용 “한글 능력 검정 시험 도우미”(이하 <한글>로 표시)를 들 수 있다. <국제>는 가장 초급인 1 급부터 6 급까지 6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차례 보완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급수별 어휘 목록 및 문법 목록은 2011 년(2 단계), 그리고 2017 년(4 단계)에 제시된 바 있다. <한글>은 5 급이 가장 낮고 1 급이 가장 높은 6 단계로, 5 급과 4 급이 초급, 3 급과 준 2 급이 중급, 2 급과 1 급이 고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2 년에 새로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한글>의 경우, 永原歩·尹亭仁(2012)에서 일본 대학의 초급 한국어 교재와 문법 목록을 비교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국제>와 일본의 한국어 입문 교재의 문법 항목을 비교하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연구 성과나 새로 개정된 한국어 참조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본의 대학에서 많이 쓰이는 한국어 입문 교재 15 종의 문법 항목을 검토하는 한편, 일본 대학의 한국어 수업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문법 항목들을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는 일본 대학교에서 입문용 한국어 교재로 많이 쓰이는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李安九(2020)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일본 국립대학의 2020 년도 실라버스를 전수 조사하여 그중 교양 과정의 한국어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64 개교의 실라버스를 검토, 분석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본 국립대학에서 쓰이는 입문용 교재 중 3 개교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9 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하세가와 유키코(2019)에서는 학부생만 명 이상의 대학교 50 개교를 조사하여 4 개교 이상에서 쓰이거나 혹은 10 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쓰이고 있는 대표적 교재 23 종을 선정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중 상위 10 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적으로 李安九(2020), 하세가와 유키코(2019)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된 교재 7 종을 포함한 총 15 종의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문법 항목을 검토하였는데, 조사 대상으로 삼은 교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각 교재에 대해 李安九(2020)에서 조사된 빈도수(채택 학교 수)와 하세가와 유키코(2019)에서 많이 쓰이는 순서로 제시된 번호도 함께 기재하기로 한다.

(1) 조사 대상 교재 목록

	교재명 (출판사, 출판년)	李	하세가와
①	最新チャレンジ! 韓国語 (白水社, 2014)	11	(6)
②	韓国語の世界へ (入門編)(朝日出版社, 2017)	7	(1)
③	ことばの架け橋 (白帝社, 2011)	7	(2)
④	基礎から学ぶ韓国語講座 初級 (国書刊行会, 2006)	4	(4)
⑤	バルン韓国語 初級 (朝日出版社, 2019)	4	-
⑥	やさしく仕組みがわかる韓国語初級講義ノート (白帝社, 2014)	4	(22)
⑦	韓国語へ旅しよう (初級) (朝日出版社, 2012)	3	-
⑧	Campus Corean- はばたけ! 韓国語 (朝日出版社, 2007)	3	(11)
⑨	グループで楽しく学ぼう! 韓国語 (朝日出版社, 2015)	3	(12)
⑩	パランセ韓国語 初級 (朝日出版社, 2013)	1	(3)
⑪	できる韓国語 初級 I (アスク, 2010)	2	(5)
⑫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聞いて話そう I (白帝社, 2012)	2	(7)
⑬	即! 実践 楽しもう韓国語 (白帝社, 2017)	-	(8)
⑭	韓国語を学ぼう (初級) (朝日出版社, 2006)	2	(9)
⑮	韓国語の初歩 (白水社, 2012)	2	(10)

위의 교재 중 밑줄 친 교재 5 종(③, ⑦, ⑧, ⑪, ⑬)은 연간 학습 시간이 90 시간인 수업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교재 ③과 ⑦의 서문에는 주 2 회 수업에서의 사용을 상정하고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나머지 10 종의 교재들은 45 시간용으로, 90 시간용 교재에 비해 종류도 많고 그 쓰임이 더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실제로 일본 대학의 한국어 수업이 주 1 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²⁾

한편, 한국어 학습의 참조 기준으로는 국립국어원의 <국제>와 일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7 년에 발표된 <국제>(4 단계)의 문법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 대학의 한국어 입문 교재 15 종을 검토하되, <한글>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의 목록도 함께 살피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비교를 위해 한국 대학의 입문 교재 중 서울대의 60 시간 단기 과정용 교재(이하 <서울대>로 표시)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 한편, 미국의 한국어 교재로는 하와이대학에서 나온 교재(이하 <하와이대>로 표시), 그리고 중국의 입문 교재로는 북경대의 교재(이하 <북경대>로 표시)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 중 서울대 단기 과정 교재와 하와이대학의 교재는 가장 초급 단계인 1 권만으로는 문법 항목의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다음 단계인 2 권까지 함께 살피기로 한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미·중의 입문 교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 비교 대상으로 검토한 한·미·중의 한국어 입문 교재

약칭	교재명(출판사)	출판년
<서울대>	사랑해요 한국어 1·2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9·2020
<하와이대>	Intergrated Korean Beginning 1·2, third edtion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9·2020
<북경대>	標準韓國語 第 1 冊 第 7 版 (北京大學出版社)	2018

3. 일본 대학교 한국어 입문 교재의 문법 항목

<국제>의 등급별 문법 항목 중 초급에는 1, 2 급 각 45 개씩 총 90 개의 문법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의 문법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15 종 입문 교재의 문법 항목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한글>이나 한·미·중의 교재도 필요에 따라 언급하기로 한다.⁽³⁾

3.1. 조사

일본 대학교의 입문용 한국어 교재 15 종에 쓰이는 조사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3)과 같다. 각각의 빈도수를 [] 안에 표시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되 각 문법 항목의

대표형은 <국제>의 대표형으로 제시하며, <국제> 1 급의 항목인 경우는 밑줄로, 그리고 <한글>의 가장 입문 단계인 5 급의 목록에 제시된 것은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 (이하 동일)

(3) 가. 이[15], 이다[15], 에[15], 에서[15], 을[15], 하고[14], 으로[13], 에게[12], 과[11], 한테[10], 보다[10], 의[9], 께[7], 께서[6], 에게서[5], 한테서[5], 이랑[2], 같이[1], 서[1], 이라도[1], 이라면[1]

나. 도[15], 은[15], 부터[14], 까지[14], 요[9], 만[3], 밖에[2], 이나[1]

(3 가)은 격조사, (3 나)은 보조사의 경우이다. <국제>의 목록과 비교해 보면 <국제> 1 급에 제시된 조사 19 개가 모두 쓰이고 있는데, (3 가)의 ‘이다’는 <국제> 1 급의 조사이지만 <한글>에서는 조사가 아닌 5 급의 어휘 항목으로 다루어졌다. ‘께서’와 ‘이랑’은 <국제>에서 1 급으로 다루어지는데 <한글>에서 각각 초급인 4 급과 중급인 3 급의 조사로 제시되었다. <국제> 2 급의 조사로는 (3 가)의 ‘께’, ‘에게서’, ‘한테서’, 그리고 (3 나)의 ‘밖에’, ‘이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글>에서는 ‘이나’만 중급인 3 급으로 다루어지고 나머지는 초급인 4 급 조사로 제시되었다. (3 가)의 ‘같이’와 (3 나)의 ‘요’는 <국제>에서 3 급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경우인데 <한글>에서는 가장 입문 단계인 5 급의 조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라도’는 <국제>에서 중급인 4 급의 조사인데 <한글>에서는 초급인 4 급의 조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라면’은 <국제>에서 고급인 6 급의 조사인데 <한글>에서는 중급인 3 급으로 제시되었다. 주격 조사 ‘서’(‘들이서’와 같은 경우)는 <국제>나 <한글>의 조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15 종의 교재들에 쓰이는 조사의 도입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각 교재의 도입 순서대로 제시하되 ‘>’은 다른 단원으로 바뀌는 경우를 표시하며 같은 단원 내에서는 쉼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4) 조사의 도입 양상⁽⁴⁾

①	은, 이다 > 이, 에, 도, 하고 > 부터, 까지 > 을 > 에서 > 보다
②	은, 이다 > 이 > 에 > 을, 도 > 에서 1, 에게, 한테 > 으로, 에서 2, 까지 > 부터 > 하고
③	이다, 은 > 이, 에, 도 > 을, 에서 > 부터, 까지, 의 > 과, 하고 > 으로 > 에게, 한테, 에게서, 한테서, 께서, 께 > 밖에 > 만, 보다 > 요
④	은, 이다 > 이 > 도 > 하고, 과, 에, 요 > 을, 에서 > 이라면 > 까지, 으로 > 부터, 만 > 밖에 > 보다 > 에게, 한테, 에게서, 한테서
⑤	이다, 은 > 이 > 의 > 을 > 에, 도 > 에서 1 > 에서 2 > 과, 하고 > 부터, 까지 > 에게, 한테, 에게서, 한테서 > 께, 께서
⑥	은, 이다, 도 > 의 > 이, 에 1, 과, 하고 > 을, 에서 1 > 보다 > 에 2 > 에게, 한테 > 부터, 까지 > 으로 > 에서 2 > 요

⑦	은, 이다 > 도 > 의 > 이, 에 1, 과, 하고 > 을, 에 2, 에서 1 > 에 3 > 부터, 에서 2, 보다 > 까지, 으로
⑧	이다 > 은 > 에서 1, 이, 요 > 부터, 까지, 에서 2 > 을 > 도, 에, 에게, 한테, 께 > 으로 > 하고, 과
⑨	은, 이다 > 도 > 이, 에 > 하고, 이랑, 과, 을 > 에서, 부터, 까지 > 으로, 서 > 보다 > 요, 에게
⑩	은, 이다 > 에 1, 도, 의 > 을 > 에 2 > 이 > 보다 > 에 3 > 부터, 까지 > 에서 1 > 과, 하고 > 에서 2 > 에 4 > 으로 1 > 으로 2 > 에게, 한테 > 요, 같이, 으로 3
⑪	이다, 은 > 이 > 도 > 에서 1, 하고 > 에 > 을 > 과, 부터, 까지, 에서 2 > 보다, 으로, 의 > 에게, 께, 께서 > 한테 > 요 > 만 > 이라도
⑫	이다 > 은, 이 1 > 도 > 을 > 에 > 으로 > 이랑, 요, 이 2 > 에서
⑬	은, 이다, 도 > 이 > 하고, 에 1 > 을, 에서 1, 에 2 > 보다, 까지, 에서 2, 으로 > 의 > 부터, 요 > 에게, 에게서, 한테, 한테서 > 이나 > 께, 께서
⑭	은, 이다 > 도 > 의 > 이, 에 1, 과, 하고 > 을, 에서 1 > 에 2, 께서 > 부터, 에서 2, 보다 > 까지, 으로 > 에게, 에게서, 한테, 한테서, 께
⑮	은, 이다 > 이 > 에서 1 > 과, 하고, 부터, 도, 의 > 까지, 에서 2, 에 > 으로, 을, 에게, 께, 께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은’과 ‘이다’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도’, ‘의’ 등의 다른 조사가 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현식(2009)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은’과 ‘이’를 잇달아 입문기에 제시하여 변별해 가도록 하며 ‘은’의 주제화 용법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대조화 용법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일본어 모어 학습자의 경우, ‘은’과 ‘이’의 구별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주제화와 대조화의 용법도 따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교재 ⑫와 같이 주제화의 ‘이’를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경우라 하겠다.

조사 ‘에’는 교재 ⑥, ⑬, ⑭에서 ‘시간’과 ‘장소’로 나누어서 제시하였고 교재 ⑦에서는 ‘장소’, ‘도달점’, ‘시간’, 그리고 ⑩에서는 ‘장소’, ‘도달점’, ‘시간’, ‘단위’의 용법으로 나누어 도입하였는데, 그 밖의 다른 교재들에서는 따로 ‘에’의 용법을 구분하여 도입하지 않았다. 참고로 <북경대>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나누었고 <서울대>는 ‘시간’과 ‘-에 가다 (도달점)’, ‘-에 있다 (장소)’로 각각 항목을 구분하였다. <하와이대>에서는 ‘장소’의 ‘에’를 도입한 후에 ‘도달점’의 ‘에’와 ‘시간’의 ‘에’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권 2에서는 ‘단위’의 용법을 다루었다. 하세가와 유키코·이수경(2002)에서는 한국의 교재들에 비해 일본 교재에서 ‘에’의 용법을 굳이 ‘시간’과 ‘장소’로 나누어 취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어권 학습자의 경우, ‘에’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に」)의 쓰임과 공통된다는 점을 언급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⁵⁾

다음으로 ‘에서’는 ‘처소’와 ‘출발점’의 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발점’의 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 경우(①, ④, ⑫, ⑮)도 있다. 교재 ⑫는 ‘부터’와 ‘까지’를 다루지 않아 ‘출발점’의 ‘에서’ 역시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5종 교재 중 과반 이상의 교재에서는

‘출발점’의 ‘에서’를 따로 구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어에서 ‘처소’와 ‘출발점’이 각각 별개의 조사(「で」와「から」)로 대응된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비교 대상 중 <북경대>에서는 ‘처소’와 ‘출발점’을 나누어 도입하였으며, <서울대>와 <하와이대>의 경우, 1 권에서는 ‘처소’의 용법만 도입되고 ‘출발점’의 ‘에서’는 2 권에서 다루어졌다.

조사 ‘으로’는 ‘수단’과 ‘방향’의 용법이 함께 기술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도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단’의 용법만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방향’의 ‘으로’만을 다룬 경우는 이번 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대>는 ‘방향’의 용법을 ‘수단’보다 먼저 도입하고 있으나, 일본의 교재나 <하와이대>, <북경대>에서는 ‘수단’의 용법을 먼저 제시하였다. 하세가와 유키코·이수경(2002)에서는 ‘수단’의 용법이 먼저 제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방향’의 용법은 조사 ‘에’로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으나 ‘수단’의 용법은 다른 조사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교재 ⑩에서는 ‘수단’과 ‘방향’ 외에 ‘자격’의 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공동격 조사의 경우, 구어체의 ‘하고’가 ‘과’에 비해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재 ⑧에서는 ‘하고’에 대한 설명 부분에 참고 사항으로 ‘과’를 제시하는 정도로 다루었다. ‘하고’나 ‘과’를 도입하지 않은 교재 ⑫의 경우, 접속 조사로 ‘이랑’을 제시하였으며, 교재 ⑨와 같이 ‘하고’와 ‘과’, ‘이랑’을 모두 다룬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하고’는 한·미·중의 교재에서 모두 다루어졌는데, <서울대>에서는 ‘하고’만 도입하였고 <북경대>에서는 ‘하고’와 함께 ‘과’를 제시하였으며, <하와이대>에서는 ‘하고’와 ‘이랑’을 도입하였다.

여격 조사는 ‘에게’와 ‘한테’를 모두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교재에서는 ‘께’를 도입하기도 한다. <서울대>와 <북경대> 교재에서는 ‘에게’와 ‘한테’, ‘께’가 모두 다루어졌는데 <서울대>의 경우, 모두 1 권이 아닌 2 권에서 제시되었다. <하와이대>는 초급 2 권에서 ‘한테’와 ‘께’만을 다루고 ‘에게’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글>은 ‘에게서’, ‘한테서’와 통용될 수 있는 ‘에게’와 ‘한테’를 4 급에서 별도의 항목로 다루고 있어 특징적이다.

속격 조사 ‘의’는 한·미·중의 교재에서 모두 다루어졌는데, 일본의 교재는 9 종에서만 확인되었다. ‘의’는 회화체에서 활발히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 시간이 45 시간 혹은 90 시간으로 제한되는 일본 대학 수업에서 ‘의’를 다루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의’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の」)는 한국어의 ‘의’보다 더 많이 쓰이고 그만큼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조사 ‘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초급 교재에서 조사를 어떤 순서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위계화의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로는 김제열(2001)과 민현식(2009)의 논의를 살필 수 있다. 김제열(2001)에서는 ‘이 - 을 - 에(장소) - 에서(출발점) - 에(도착점), 에서(처소) - 에(시간) - 에(단위) - 으로(수단), 으로(방향) - 에게/한테 - 의’와 같은 도입 순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민현식(2009)에서는 보조사 ‘은’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에 있다/가다’와 같은 자동사 구문을 먼저

제시한 이후에 ‘을’의 타동사 구문을 제시하는 것이 위계에 맞다고 언급하였다. 이번에 살펴 본 한·미·중의 교재에서는 ‘을’이 ‘에’보다 먼저 도입되었는데, 일본의 교재에서는 2 종(⑤, ⑩)을 제외한 13 종에서 ‘에’가 ‘을’보다 먼저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교재에서는 ‘있다’, ‘없다’의 존재 구문이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다른 용언들의 활용보다 먼저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2. 활용어미

먼저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가 15 종의 교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기로 한다. 다음의 (5)는 15 종의 입문 교재에서 쓰이는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빈도수를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국제>의 대표형을 제시하되 종결어미 ‘-어’는 편의상 ‘-어요’로 표시한다.

- (5) ㄱ. -어요[15], -으세요[14], -습니까[12], -습니다[12], -을까[11], -네[8], -지[7], -읍시다[7], -으십시오[3], -을게[3], -거든[3], -는데[3], -자[2], -을래[2], -잖아[1]
 ㄴ. -었-[15], -겠-[12], -으시-[11]

이번에 조사한 일본 대학의 한국어 입문 교재에서는 (5 ㄱ)에서 밑줄로 표시한 <국제> 1 급의 종결어미 7 종이 모두 쓰였는데, 이 중 ‘-읍시다’와 ‘-으십시오’는 빈도수가 과반을 넘지 않으며 <한글>에서 4 급의 어미로 제시되었다. <국제> 2 급의 종결어미로는 ‘-네’, ‘-지’, ‘-을게’, ‘-는데’, ‘-을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는 <한글>에서 5 급의 어미로 다루어졌고, ‘-네’와 ‘-을게’는 4 급, ‘-는데’와 ‘-을래’는 중급인 3 급 어미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거든’, ‘-자’, ‘-잖아’는 <국제> 3 급에서 제시된 경우인데, ‘-거든’과 ‘-잖아’는 <한글> 4 급, ‘-자’는 <한글> 3 급의 조사로 다루어졌다. (5 ㄴ)의 선어말어미는 <국제>의 1 급에 제시된 3 종이 모두 확인되는데 그 중 ‘-으시-’는 <한글>에서 4 급의 어미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도입 순서에 대해 살펴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상 ‘입니다’ 등의 활용형도 [] 안에 넣어 함께 제시하였다.

(6)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도입 양상⁽⁶⁾

①	[입니다, 아닙니다] > [있어요, 없어요] > [이에요] > -어요 > -었- > -거든 > -을까, -을게, -으세요, -지 > -겠-, -네, -는데, -자, -을래
②	[입니다] > [이에요, 아니에요] > [있어요, 없어요] > -어요 > -었- > -으세요
③	[입니다] > [있습니다, 없습니다] > -습니까, -습니다 > -으시- > -어요 > -으세요 > -었- > -겠-, -는데 > -지 > -을게 > -을까 > -네

④	[입니다] > [아닙니다] > [있습니다, 없습니다] > [합니다] > [해요], [있어요, 없어요] > -습니다, -습니까 > -어요 > -으시-, -으세요 1 > -네, -었- > -읍시다, -자 > -으세요 2 > -겠- > -을까
⑤	[입니다] > [아닙니다] > -습니다, -습니까 > -어요 > -었- > -겠- > -으시-, -으십시오 > -으세요 1, 2 > -을까, -읍시다
⑥	[입니다] > [아닙니다] > [있습니다, 없습니다] > -습니다, -습니까 > -으시- > -어요 1 > -으세요 1 > -었- > -으세요 2 > -을까, -어요 2, -겠- > -지
⑦	[입니다] > [아닙니다] > [있습니다, 없습니다] > -습니다, -습니까 > -으시- > -었- > -어요 > -으세요 1 > -을까, -읍시다, -겠-, -으세요 2, -으십시오
⑧	[이에요], [이세요] > [입니다] > [아니에요, 아닙니다] > -어요, -지 > -습니다, -습니까 > -으시-, -으세요 1 > -을까 > -었-, -거든 > -는데 > -잖아, -네 > -으세요 2, -으십시오 > -겠-
⑨	[입니다, 아닙니다] > -습니다, -습니까 > -어요 > -었- > -을까, -읍시다 > -겠- > -네 > -으세요 > -거든
⑩	[입니다] > [아닙니다] > -습니다, -습니까 > -을까 > -겠- > -으시- > -어요 > -으세요 1 > -었- > -읍시다 > -으세요 2, -지
⑪	[입니다] > [아닙니다] > [이에요, 아니에요] >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 -습니다, -습니까 > -네 > -어요 > -었- > -으시-, -으세요 > -지 > -을까, -읍시다 > -겠-
⑫	[이에요] > [아니에요] > -어요 > -네 > -었-
⑬	[입니다] > [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 -습니다, -습니까 > -어요 > -지, -네 > -었- > -으시-, -으세요 > -겠- > -을까 > -을래
⑭	[입니다] > [아닙니다] > [있습니다, 없습니다] > -습니다, -습니까 > -으시- > -었- > -어요 > -으세요
⑮	[입니다] > [아닙니다] > -습니다, -습니까 > -어요 > -으시- > -으세요 > -었- > -겠- > -을까, -읍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교재들은 모두 ‘입니다’ 혹은 ‘이에요’의 ‘이다’ 구문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요’보다는 ‘입니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더 우세하다. 그런데 교재 ①, ②에서는 ‘입니다’, ‘입니까’만 제시하고 다른 용언에 대해서는 ‘-습니다’, ‘-습니까’의 활용형을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15 종의 교재 중 과반이 넘는 교재(①, ②, ③, ④, ⑥, ⑦, ⑪, ⑬, ⑭)에서는 다른 용언들의 활용형을 도입하기 전에 ‘있다’와 ‘없다’의 활용형을 먼저 제시하였으며 교재 ④에서는 ‘이다’, ‘아니다’와 ‘있다’, ‘없다’ 외에 ‘하다’의 활용형을 다른 것들보다 먼저 도입하기도 하였다.

종결어미 ‘-어요’는 15 종 교재에서 모두 쓰이고 있는데, ‘-어요’만 도입하고 ‘-습니다’를 다루지 않는 교재도 3 종(①, ②, ⑫) 확인된다. 일본 대학의 한국어 수업 시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생활의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어요’를 택하고 ‘-습니다’를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교재 ⑫의 경우는 ‘듣기’와 ‘말하기’에 초점을 둔

교재인데 ⑫와 세트를 이루는 ‘읽기’, ‘쓰기’ 중심의 다른 교재에서는 ‘-어요’ 대신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어요’와 ‘-습니다’ 양쪽 모두 다루고 있는 12종의 교재 중 ‘-어요’가 ‘-습니다’보다 먼저 도입되는 것은 교재 ⑧이 유일하다. 이렇게 ‘-어요’보다 ‘-습니다’가 먼저 제시되는 것은 ‘-습니다’가 ‘-어요’에 비해 학습 부담이 적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습니다’와 ‘-어요’의 배열과 관련하여 김유정(1998)은 ‘-어요’형이 사회적 기능면에서 비격식적 부분을 담당하므로 격식적 부분을 담당하는 ‘-습니다’보다 먼저 학습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김제열(2001)은 활용의 학습 부담이 적고 서법 구조에 대한 인식이 용이한 ‘-습니다’를 먼저 학습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비교 대상으로 살펴 본 교재 중 <북경대>는 ‘-습니다’가 먼저 도입되지만 <하와이대>는 ‘-어요’가 먼저 제시되며, <서울대>의 경우, 초급에 해당하는 1, 2 권에서는 ‘-어요’만 쓰이고 ‘-습니다’는 3 권에서 다루어진다. 한편, ‘-어요’는 ‘가벼운 명령’이나 ‘청유’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15종 중 교재 ⑥에서만 ‘청유’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별도로 제시되었고 다른 교재들에서는 ‘청유’의 용법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으세요’는 교재 ⑫를 제외한 14종의 교재에서 쓰였는데, 교재 ⑨에서는 ‘명령’이나 ‘요청’의 의미로 쓰이는 ‘-으세요’만 도입하였고, 교재 ④, ⑥, ⑦, ⑧, ⑩에서는 ‘명령’, ‘요청’의 용법과 ‘설명’, ‘의문’의 ‘-으세요’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었다. 교재 ①은 ‘명령’, ‘요청’의 용법만 학습 항목으로 도입하고 ‘설명’, ‘의문’의 용법은 별도의 칼럼에서 ‘-으시-’와 함께 참고 사항 정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으시-’와 관련하여 활용형 ‘-으십니다’는 ‘-습니다’를 도입하지 않는 교재(①, ②, ⑫)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교재 ⑨의 경우에는 ‘-습니다’의 활용형을 다루고 있으나 ‘-으세요’만 제시하고 ‘-으십니다’는 도입하지 않았다.

한편, 선어말어미 ‘-었-’은 15종의 교재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었-’을 ‘-어요’보다 먼저 제시하는 경우는 2종(⑦, ⑭)에 불과하다. <서울대>와 <하와이대>도 ‘-어요’ 다음에 ‘-었-’을 제시했는데 <북경대>는 ‘-었-’을 먼저 도입하였다. 永原歩·尹亭仁(2012)의 조사에서도 10종의 교재 중 ‘-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3종 정도였는데 永原歩·尹亭仁(2012)에서는 과거형을 먼저 도입하면 1 학기에 학습할 수 있어 여름 방학 때 일기 쓰기와 같은 작문 연습을 할 수 있으며 해요체의 학습이 용이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학습의 난이도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면 역시 ‘-었-’보다 ‘-어요-’를 먼저 제시하는 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예를 살펴기로 한다. (7)은 15종 교재에서 쓰이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를 빈도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 (7) 가. -으러[13], -교[12], -지만[9], -어서[6], -으면[5], -게[3], -으니까[3], -는데[3],
-으려고[2], -거나[1], -으면서[1], -어도[1]
나. -는[2], -은(A)[2], -을[2], -은(V)[1], -던[1]

(7 가)의 연결어미는 <국제> 1 급에 제시된 6 종이 모두 쓰였는데, <한글>에서는 ‘-고’만 5 급으로 제시되고 나머지는 4 급에서 제시되었다. ‘-으면’, ‘-게’, ‘-는데’, ‘-거나’, ‘-으면서’는 <국제> 2 급, ‘-어도’는 <국제> 3 급의 어미인데, 이 중 ‘-으면’과 ‘-어도’는 <한글> 4 급에서 제시되고 나머지는 <한글> 3 급의 어미로 다루어졌다. (7 나) 전성어미의 경우, ‘-던’은 <국제> 3 급에서 제시되고 다른 것들은 <국제> 2 급의 어미로 제시되었는데, <한글>에서도 ‘-던’만 3 급으로 다루어지고 나머지는 그 아래 단계인 4 급의 어미로 제시되었다.

다음의 (8)은 15 종 교재에서 나타나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도입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8)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도입 양상⁽⁷⁾

①	-으러 > -고 1 > -고 2, -지만 > -이라도 > -어서
②	-으러
③	-지만, -으러 > -는, -은(V), -을, -던 > -은(A) > -어서 > -으니까 > -고, -는데 > -으면, -어도 > -거나, -게
④	-으러
⑤	-으려고, -으러
⑥	-으러, -고
⑦	-으러 > -고, -지만 > -으니까
⑧	-어서 > -으면 > -고, -으면서 > -는데 > -게 > -는 > -을, -은(A)
⑨	-지만 > -으러, -고 > -게 > -는데 > -어서
⑩	-고
⑪	-고 > -지만 > -어서 > -으면 > -으러
⑫	-고 > -지만 > -으러
⑬	-으러 > -고 > -어서 > -으면, -으니까 > -지만 > -으려고
⑭	-으러 > -고, -지만
⑮	-고, -지만, -으러 > -으면

연결어미 중에서는 ‘-으러’의 빈도가 가장 높으며 다른 것들보다 먼저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고’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지만 <하와이대>, <북경대>에서는 ‘-으러’부터 제시되었다. 김제열(2001)에서는 1 급에서 다루어야 할 연결어미를 언급하면서 ‘-으러’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한·미·중의 교재들을 비교하여 검토한 민현식(2009)에서는 미국의 교재 2 종에서 ‘-으러’가 가장 먼저 도입된 것에 주목하여 ‘-으러’가 말뭉치에서는 빈도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한국어 교재들에서 담화 상황을 설정할 때 ‘-으러 가다’와 같은 행선지 목적 설명 표현을 사용하는 문답 대화가 비교적 일찍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민현식(2009)에서는 일본의 교재들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조사한 15 종에서도 그와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는 ‘대등 나열’과 ‘순차 나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여 다룬 것은 교재 ① 정도이다. 교재 ①의 경우, ‘순차 나열’의 용법을 먼저 도입하고 그 다음에 ‘대등 나열’의 용법을 제시하였다. <하와이대>나 <북경대>는 ‘-고’의 용법을 따로 구분하여 다루지 않았는데 <서울대>는 권 1에서 ‘순차 나열’의 용법을 제시하고 ‘대등 나열’의 용법은 권 2에서 도입하였다. 그리고 ‘-고’는 ‘-지만’에 비해 빈도수도 높고, ‘-지만’보다 먼저 도입되는 경우(①, ⑪, ⑫, ⑬)가 그 반대인 경우(③, ⑨)보다 다소 우세하다. <서울대>와 <하와이대> 역시 ‘-고’를 ‘-지만’보다 먼저 도입하였다. 교재 ②, ⑤, ⑥, ⑩과 <북경대>에서는 ‘-지만’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어휘로 ‘하지만’, ‘그렇지만’이 사용되었다.

한편, 전성어미는 교재 ③, ⑧에서만 제시되었다. <서울대>와 <하와이대>의 경우, 가장 입문 단계인 1 권에서는 전성어미가 도입되지 않고 2 권에서 제시되었으며 <북경대>에서는 ‘-던’을 제외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다루어졌다.

3.3. 표현 항목 및 활용 규칙

여기에서는 15 종 교재에서 쓰이는 표현 항목과 활용 규칙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9 ㄱ)은 <국제>에 제시된 표현 항목 중 일본의 교재에서 쓰이는 것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9 ㄴ)의 부사는 어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2017 년(4 단계)의 <국제> 목록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2011 년에 발표된 <국제> 2 단계에서는 문형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논의의 편의상 이들도 함께 살펴기로 한다.

- (9) ㄱ. 이 아니다[15], -고 싶다[14], -지 않다[13], -고 있다[8], -어 주다[6], -을 수 있다[5], -지 못하다[5], -어 보다[4], -지 말다[4], -어도 되다[3], -어 드리다[3], -어야 되다(하다)[3], -는 것 같다[2], -으면 안 되다[2], -고 싶어하다[2], -게 되다[1], -기 때문에[1], -어 보이다[1], -은 지[1], -어 버리다[1]
- ㄴ. 안[15], 못[8]

이번에 조사한 한국어 입문 교재에서는 <국제> 1 급 항목으로 제시된 표현 중 ‘-기 전에’와 ‘-은 후에’를 제외한 7 종이 확인되는데, 이 중 ‘이 아니다’와 ‘-고 싶다’는 <한글> 5 급, 나머지는 <한글> 4 급의 관용 표현 목록에 제시되었다. (9 ㄱ)의 표현 중 ‘-어 주다’, ‘-어 보다’, ‘-지 말다’, ‘-어도 되다’, ‘-는 것 같다’, ‘-게 되다’, ‘-기 때문에’, ‘-은 지’는 <국제> 2 급의 항목인데, 그중 ‘-는 것 같다’와 ‘-은 지’는 <한글> 중급인 3 급에서 제시되고 나머지는 <한글> 4 급의 관용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어 드리다’, ‘-으면 안 되다’, ‘-고 싶어하다’, ‘-어 보이다’는 <국제> 3 급, ‘-어 버리다’는 <국제> 4 급의 표현인데, <한글>에서는 ‘-어 드리다’, ‘-으면 안

되다’, ‘-고 싶어하다’가 <한글> 4 급, ‘-어 보이다’, ‘-어 버리다’는 중급인 3 급의 관용 표현으로 다루어졌다. (9ㄴ)의 부사는 <국제>에서 어휘 항목으로 다루어지는데, <한글>에서 ‘안’은 5 급, ‘못’은 4 급의 관용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은 표현 항목들의 도입 양상을 교재별로 정리한 것이다.

(10) 표현 항목들의 도입 양상⁽⁸⁾

①	이 아니다, [이라고 하다] > (안) > -고 싶다 > [을 것이다], -고 있다 > -지 않다, -게 되다 > -지 말다, -을 수 있다
②	[이라고 하다] > 이 아니다 > (안) > [-을 것이다], -고 싶다
③	-지 않다, 이 아니다 > (안) > -고 있다 > -고 싶다 > -지 못하다, (못) > -어 드리다, -어 보다, -는 것 같다 > -지 말다 > -어 주다 > [-을 것이다], -을 수 있다 > -어 버리다, -어야 되다/하다, [-으면 되다], -으면 안 되다
④	[이라고 하다] > 이 아니다 > (안), -지 않다, [-으면 되다] > -고 있다 > -을 수 있다/없다, (못), -지 못하다 > -고 싶다, -어 주다 > -어도 되다, -지 말다 > -어야 하다 > [-을 것이다]
⑤	이 아니다 > (안), -지 않다 > -고 있다, -고 싶다
⑥	[이라고 하다] > 이 아니다 > -지 않다 > (안) > (못) > -고 싶다
⑦	[이라고 하다] > 이 아니다 > -지 않다 > (안) > -고 싶다, -고 싶어하다
⑧	[이라고 하다] > 이 아니다 > (안), (못) > -고 싶다, -어 보다 > -어 주다, -어 드리다 > -고 있다, -지 않다, -는 것 같다 > -지 말다
⑨	이 아니다, [이라고 하다] > (안), -지 않다 > -어 주다 > -고 싶다 > -은 지, -어 보다, -을 수 있다/없다, (못), -지 못하다 > [-으면 되다] > [-을 것이다], -어야 되다
⑩	이 아니다 > -고 있다 > -지 않다 > (안) > -고 싶다
⑪	이 아니다 > (안), -지 않다 > -고 싶다, -고 싶어하다 > -어도 되다, [-으면 되다] > -어 주다 > (못), -을 수 있다/없다, -고 있다
⑫	[이라고 하다] > 이 아니다 > (안) > -고 싶다, [-을 것이다]
⑬	[이라고 하다] > 이 아니다 > (안), -지 않다 > -어 보이다 > -고 싶다, -어 보다 > -어 드리다 > -어도 되다, -으면 안 되다 > -어 주다, [-으면 되다] > (못), -지 못하다, -기 때문에
⑭	[이라고 하다] > 이 아니다 > -지 않다 > (안)
⑮	이 아니다 > (안), -지 않다 > [이라고 하다] > -고 싶다 > -고 있다, (못), -지 못하다

위에 제시된 표현들 중 []로 표시된 ‘이라고 하다’, ‘-을 것이다’, ‘-으면 되다’는 <국제>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수의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 항목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이다. 그중 ‘이라고 하다’는 자기 소개 단원에서 빈번히 쓰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일본어 표현(「-と 言う・申す」)이 일본어의 자기 소개 장면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제>의 3 급 조사로 제시된 ‘이라고’가 <한글>에서 가장 입문 단계인 5 급의 조사로 분류된 것 역시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한·미·중의 초급 교재에서는 ‘이라고 하다’의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경우, 장형 부정만 제시하는 경우는 없으나 교재 ②, ⑫와 같이 단형 부정만 도입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다.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은 하나의 항목에서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로 제시할 경우, 단형 부정보다 장형 부정을 먼저 도입하는 쪽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북경대>에서는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을 동시에 함께 다루었으며, <서울대>, <하와이대>에서는 단형 부정이 먼저 도입되었다.

한편, ‘-고 싶다’는 그 빈도수가 연결어미 ‘-고’보다 높은데, 교재 ②, ④, ⑤에서는 ‘-고’를 다루지 않고 ‘-고 싶다’만 도입하였다.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는 경우, 연결어미 ‘-고’를 먼저 다루는 교재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일부 교재(③, ⑩, ⑮)에서는 ‘-고 싶다’나 ‘-고 있다’를 제시한 후 연결어미 ‘-고’를 나중에 도입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 활용과 ‘ㄹ’ 탈락, ‘으’ 탈락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들은 <국제>나 <한글>의 문법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11 년의 <국제> 2 단계에서는 불규칙 활용도 초급의 항목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다음의 (11)은 일본의 한국어 입문 교재에서 활용 규칙이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활용 규칙의 경우, 별도의 칼럼이나 부록에서 참고 사항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11) ‘ㄹ’ 탈락, ‘으’ 탈락과 불규칙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ㄹ 탈락	○	-	○	○	○	○	○	○	○	○	○	-	○	○	○
으 탈락	○	○	○	○	○	○	-	○	○	○	○	○	○	-	○
불규칙	3	-	6	6	1	-	-	3	4	1	-	4	-	-	6

15 종의 교재 중 ‘-습니다’를 학습 항목으로 도입한 12 종에서는 모두 ‘ㄹ’ 탈락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교재 ①은 ‘-습니다’를 학습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별도의 칼럼에서 다른 활용 규칙과 함께 ‘ㄹ’ 탈락에 대해 기술하였다. ‘-어요’는 15 종 모두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중 2 종(⑦, ⑭)에서는 ‘으’ 탈락에 대해 다루지 않았으며, 9 종의 교재(①, ③, ④, ⑤, ⑨, ⑩, ⑪, ⑬, ⑮)에서는 불규칙(변칙) 활용으로 기술되었다. 불규칙 활용의 경우, 교재 ③에서는 ‘ㅂ’, ‘ㄷ’, ‘ㅅ’, ‘ㅎ’, ‘ㄹ’, ‘러’ 불규칙 활용을 모두 학습 항목으로 도입한 것에 비해, 교재 ④는 이들을 학습 항목이 아닌 별도의 칼럼에서 제시하였으며, 교재 ⑮는 ‘ㅂ’ 불규칙만 학습 항목으로 다루고 나머지 불규칙 활용은 부록의 칼럼에서 언급하였다. ‘ㅂ’ 불규칙은 교재 ⑤, ⑧, ⑨에서도 학습 항목으로 다루어졌는데, 교재 ⑧에서는 ‘ㄷ’, ‘ㄹ’ 불규칙 역시 학습 항목으로 도입하였으며 교재 ⑨는 ‘ㄷ’, ‘ㅅ’, ‘ㄹ’ 불규칙을 별도의 칼럼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재 ①, ⑩, ⑫는 모두 학습 항목이 아닌 별도의 칼럼에서 불규칙 활용을 다루었는데, 교재 ⑩은 ‘ㅂ’ 불규칙만 언급하였고 교재 ①은 ‘ㅂ’, ‘ㄷ’, ‘ㄹ’ 불규칙을 제시하였으며 교재 ⑫에서는 이에 더하여 ‘ㅎ’ 불규칙까지 제시하였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1 권에서 ‘ㅂ’ 불규칙과 ‘ㄷ’ 불규칙이 제시되고 2 권에서는 ‘ㄹ’ 탈락과 ‘으’ 탈락, 그리고 ‘ㄷ’ 불규칙이 다루어졌다. <하와이대>의 경우, 1 권에서 ‘ㄷ’ 불규칙과 ‘ㅂ’ 불규칙, 그리고 ‘으’ 탈락이 제시되고 2 권에서는 ‘ㄹ’ 탈락과 ‘ㅎ’ 불규칙, ‘ㄷ’ 불규칙이 도입되었다. <북경대>에서는 ‘ㄹ’ 탈락과 ‘으’ 탈락, 그리고 ‘ㅂ’ 불규칙과 ‘ㄷ’ 불규칙이 다루어졌는데 ‘ㄹ’ 탈락은 불규칙 활용으로 기술되었다.

4. 고찰 및 제안

지금까지 일본 대학의 한국어 입문 교재에서 어떤 문법 항목들이 쓰이는지 살펴 보았다. 각 교재에서 다루어진 문법 항목의 수를 <국제>의 기준에 맞추어 문법 범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활용형이나 표현, 활용 규칙 등은 제외하였다.

(12) 일본 대학의 한국어 입문 교재 15 종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의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조사	11	13	23	21	18	17	14	16	17	18	21	10	21	20	16
종결어미	10	2	9	8	7	6	7	11	8	7	8	2	8	4	6
선어말어미	2	1	3	3	3	3	3	3	2	3	3	1	3	2	3
연결어미	5	1	10	1	2	2	4	6	6	1	5	3	7	3	4
전성어미	-	-	5	-	-	-	-	3	-	-	-	-	-	-	-
표현	7	2	14	10	4	3	4	9	9	4	8	2	11	2	5
합계	35	19	64	43	34	31	32	48	42	33	45	18	50	31	34

이번에 살펴 본 15 종 교재의 경우, 적게는 18 개(⑫), 많게는 64 개(③)의 문법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15 종 교재의 평균 문법 항목 수는 37.26 개이다. 밑줄로 표시한 90 시간(주 2 회 수업)용 교재(③, ⑦, ⑧, ⑪, ⑬)에서는 32~64 개, 그리고 45 시간(주 1 회 수업)용 교재에서는 18~43 개의 항목이 다루어졌는데, 양쪽 모두 동일한 학습 시간을 상정한 교재들에서 다루어지는 항목 수가 많게는 2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45 시간 수업 또는 90 시간 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문법 항목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재 작성자나 교사, 연구자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그다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일본의 15 종 교재에서 다루어진 문법 항목 수의 평균치와 학습 시간당 문법 항목 수를 45 시간용 교재와 90 시간용 교재로 나누어 제시하고, 한국어 참조 기준 <국제> 1 급과 <한글> 5 급, 4 급, 그리고 <서울대>, <하와이대>, <북경대>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국제>의 문법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항목 수를 계산하였으며, 반올림 없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였다. 그리고 45 시간용 교재와 90 시간용 교재처럼 학습 시간이 두 배로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학습 시간이 적은 입문 단계의 것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13) 일본의 대학 교재와 <한글> 5, 4 급 및 <국제> 1 급, 한·미·중 교재의 문법 항목 수⁽⁹⁾

	시간	항목 수	시간당	조사	종결	선어말	연결	전성	표현
㉑	45 시간용	32	0.71	16.1	6	2.3	2.8	0	4.8
㉒	90 시간용	47.8	0.53	19	8.6	3	6.4	1.6	9.2
㉓	한글 5	31	0.77	20	6	2	1	0	2
㉔	한글 4·5	78	0.97	27	12	3	8	4	24
㉕	국제 1	72~ 200	0.62~ 0.22	19	8	3	6	0	9
㉖	서울대 1	18	0.30	12	3	1	1	0	1
㉗	서울대 1·2	43	0.35	16	5	1	7	2	12
㉘	하와이 1	18	0.33	12	2	1	2	0	1
㉙	하와이 1·2	61	0.57	22	10	3	7	5	14
㉚	북경대	59	-	22	10	3	8	4	12

음영으로 표시한 45 시간용 교재 평균(㉑)과 <한글> 5 급(㉓)은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 수가 32 개와 31 개, 시간당 항목 수는 0.71 개와 0.77 개로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역시 음영으로 표시한 <서울대> 1 권(㉖)과 <하와이대> 1 권(㉘) 역시 문법 항목 수가 18 개로 같고, 시간당 항목 수가 0.3 개와 0.33 개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45 시간용 교재의 평균을 <서울대> 1 권이나 <하와이대> 1 권과 비교해 보면 45 시간용 교재는 이들보다 학습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항목 수는 훨씬 많아서 시간당 항목 수가 이들의 두 배를 넘을 정도이다. 항목별로 보면 특히 조사와 종결어미, 그리고 표현 항목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90 시간용 교재(㉒)의 경우, 평균 문법 항목 수는 47.8 개로 <국제> 1 급(㉕)의 45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학습 시간당 항목 수는 0.53 개로 하와이대 1, 2 권(㉙)의 0.57 개와 유사하다. <국제> 1 급은 학습 시간이 72~200 시간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시간당 문법 항목 수도 유동적인 편인데, 최소 학습 시간인 72 시간으로 보더라도 시간당 문법 항목 수는 0.62 개 정도이다. 그에 비해 학습 시간이 80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글> 4·5 급(㉔)의 경우, 시간당 문법 항목 수가 0.97 개로 (13)의 표에 제시한 것들 중 가장 많다.

45 시간용 교재와 90 시간용 교재를 비교해 보면 45 시간용 교재(㉑)의 평균 문법 항목 수는 32 개인데, 그에 비해 90 시간용 교재의 평균 문법 항목 수는 47.8 개로 45 시간용 교재의 1.49 배 정도에 불과하다. 학습 시간이 두 배 차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45 시간용 교재에서는 90 시간용 교재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문법 항목이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학습 시간당 항목 수를 살펴 보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나는데, 45 시간용 교재의 시간당 항목 수는 0.71 개로 90 시간용

교재의 0.53 개보다 1.33 배 정도 많다. 이는 학습 시간이 2 배로 증가하게 되는 다른 경우들과는 상반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첫 입문 단계에서는 한글 자모의 학습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보다 다소 적은 양의 문법 항목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 시간이 40 시간으로 설정된 <한글> 5 급(㉔)의 시간당 항목 수는 0.77 개로 80 시간의 <한글> 4·5 급 전체(㉕)의 시간당 항목 수(0.97 개)의 8 할 정도이며, <하와이대> 1 권(㉖)은 시간당 항목 수가 0.33 개로 <하와이대> 1, 2 권 전체(㉗)의 시간당 항목 수(0.57 개)의 6 할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서울대> 1, 2 권 전체(㉘)의 시간당 문법 항목 수는 0.35 개로, <서울대> 1 권(㉙)의 0.3 개에서 약간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45 시간용 교재들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의 수는 90 시간용 교재나 한·미·중의 교재들, 그리고 <국제>, <한글>과 같은 참조 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45 시간이라는 제한적인 학습 시간 내에 한국어의 기본 문법을 익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문법 항목을 학습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유사성으로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비교적 학습이 용이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문법 항목을 학습하느라 회화 연습이나 의사 소통 활동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¹⁰⁾

이제 지금까지 살펴 본 문법 항목들의 빈도와 도입 양상을 참고하여 일본 대학 한국어 입문 교재에서 다루어질 만한 문법 항목을 정리하여 제안해 보기로 한다.

(14) 일본 대학 한국어 입문 교재의 문법 항목 제안⁽¹¹⁾

	45 시간용 : 24 항목		90 시간용 : 43 항목(19 항목 추가)	
조사	이다, 은, 이, 도, 하고, 예, 에서, 을, 부터, 까지, 으로, 과, 의	13	보다, 에게, 한테, 께, 께서, 에게서, 한테서	7
종결어미	-습니다, -습니까, -어요, -으세요	4	-을까, -네, -지	3
선어말어미	-았-, -으시-	2	-겠-	1
연결어미	-고, -으러	2	-지만, -어서	2
전성어미		0		0
표현	이 아니다, (안), -지 않다, -고 싶다	3	(-을 것이다), -고 있다, -어 주다, -어 보다, -을 수 있다, (못), -지 못하다, -지 말다	6
활용 규칙	ㄹ 탈락, 으 탈락		ㅂ 불규칙, ㄷ 불규칙, ㄹ 불규칙	

45 시간용 교재에서는 빈도수 11 이상의 조사를 제시하되, ‘에게’는 다른 여격 조사들과 함께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90 시간용 교재에서 다루기로 한다. 90 시간용 교재에서는 빈도수 5 이상의 조사를 도입하되 ‘요’는 제외하고자 한다. 일상 회화에서 ‘요’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필수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학습 시간 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학습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국제>의 초급 목록이나 <서울대>, <하와이대>, <북경대>의 초급 교재에도 ‘요’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의 교재들에서 ‘요’의 빈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글> 5 급에 ‘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사의 도입 순서를 생각해 보자면, 먼저 ‘이다’와 ‘은’, ‘이’를 제시하고 이어서 ‘도’와 ‘하고’를 도입하여 ‘이다’ 구문의 연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뒤에 존재 구문과 자동사 구문, 타동사 구문으로 이어지면서 ‘에’와 ‘에서’, ‘을’을 도입한 후, ‘부터’와 ‘까지’, 그리고 ‘으로’를 도입하는 것으로 45 시간용 교재를 구성해 볼 수 있다. 공동격 조사 ‘과’는 ‘하고’를 도입하면서 함께 언급하는 정도로 다루며 속격 조사 ‘의’는 해당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로 제시할 수 있겠다. 그리고 90 시간용 교재에서는 이에 더하여 비교격과 여격 조사, 높임말의 조사를 제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종결어미는 45 시간용 교재에서 빈도수 12 이상의 4 종을 제시하고 90 시간용 교재에서는 빈도수 7 이상의 종결어미를 더하되, 다만 ‘-읍시다’는 구어 회화문에서 ‘-어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기로 한다. <서울대>와 <하와이대> 역시 초급에서 ‘-읍시다’가 쓰이지 않았다. 종결어미 중 ‘-지’와 ‘-네’는 <국제>에서 2 급으로 제시되었는데, 활용에 대한 학습의 부담이 적고 상대방에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는 용법으로 의사 소통 활동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일본어에도 유사한 표현(「-でしょう」, 「-ね」)이 존재하여 일본어 모어 학습자가 비교적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90 시간용 교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 중 ‘-지’는 <한글> 5 급의 어미로, 이번에 살펴 본 한·미·중의 초급 교재 3 종에서 모두 사용되었는데, 그에 비해 ‘-네’는 <한글> 4 급의 어미로, <서울대>, <북경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와이대>에서는 2 권에 제시되었다. 선어말어미는 3 종 모두 빈도수 11 이상으로 많이 쓰이는데, ‘-겠-’은 입문 단계에서의 활용도나 중요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45 시간용 교재보다는 90 시간용 교재에서 제시하는 편이 나올 듯하다. 연결어미의 경우, 45 시간용 교재에서는 빈도수 12 이상의 ‘-으러’와 ‘-고’를 제시하고 90 시간용 교재에서는 빈도수 6 이상의 ‘-지만’과 ‘-어서’를 더하기로 한다. 그리고 전성어미는 45 시간용, 90 시간용 교재 모두에서 다루지 않는다.

표현 항목은 45 시간용 교재에서 빈도수 13 이상의 3 종을 제시하고 90 시간용 교재에서는 빈도수 4 이상의 표현을 추가로 도입한다. ‘-어 보다’와 ‘-어 주다’는 <국제> 2 급에서 제시된 경우이나, 일본어에도 유사한 표현(「-してみる」, 「-してくれる」)이 존재하고 의사 소통 활동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90 시간용 교재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단형 부정의 ‘안’과 ‘못’, 그리고 ‘-을 것이다’는 <국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편의상 학습 항목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용언의 활용 규칙과 관련해서는 45 시간용 교재에서 ‘ㄹ’ 탈락과 ‘으’ 탈락을 제시하며, 90 시간용 교재에서는 비교적 여러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ㅂ’ 불규칙과 ‘ㄷ’ 불규칙, ‘르’ 불규칙 활용 정도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45 시간용 교재에서는 총 24 항목을 도입하고 90 시간용 교재에서는 43 항목을 제시하려고 한다. 45 시간용 교재와 90 시간용 교재의 시간당 항목 수는 각각 0.53 개, 0.47 개로 45 시간용 교재가 90 시간용 교재보다 다소 많기는 하나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번에 조사한 일본의 15 종 교재들과 비교하면 문법 항목의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문법 항목을 다루기보다는 필요한 문법 항목을 최소한으로 제시하면서 문법 항목과 연계되는 의사 소통 활동을 적절히 도입하고자 한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일본 대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많이 쓰이는 입문용 교재 15 종에 나타나는 문법 항목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조사, 종결어미 및 선어말어미,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표현 항목과 활용 규칙의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항목들의 빈도수를 조사하고 각 교재에서 어떤 순서로 도입되는지 살펴보았으며, 한국어 능력 평가 참조 기준인 <국제>와 <한글>에서 제시된 문법 목록과 비교하는 한편, 한·미·중의 입문 교재에서 쓰이는 문법 항목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 대학에서 쓰이는 45 시간용 교재와 90 시간용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의 개수를 조사하여 <국제>와 <한글> 및 한·미·중의 초급 교재와 비교하여 살펴 보았으며 그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 대학의 한국어 입문 교재에서 다룰 만한 문법 항목을 45 시간용 교재와 90 시간용 교재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제안한 내용은 일본 교재에서 쓰이는 문법 항목만을 살펴 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험적으로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학습 시간별로 어떠한 어휘를 어느 정도 사용하여 어떠한 의사 소통 활동을 도입하고 단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함께 유기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한·미·중의 교재를 함께 살펴 보았는데, 각각 한 교재씩만 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에 교재들의 나라별 특징을 포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注>

(1) 하세가와 유키코·이수경(2002)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일본의 대표적 한국어 학자들이나 교육 경험이 많은 집필자에 의해 편찬된 교재 9종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재 9종의 문법 실리버스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永原歩·尹亭仁(2012)에서는 2000년 이후에 출판되어 주로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10종의 초급 교재에서 쓰이는 문법 항목에 대해 검토하였다. 오고시 나오키(2016)에서는 일본에서 편찬된 교재를 1980년대 말~1990년대 전반,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전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으로 나누어 살펴었는데, 2000년대 후반 이후의 교재로는 45시간 유형과 90시간 유형의 교재를 각 2종씩 조사하고 한국의 단기 과정 교재 2종과의 비교 작업도 진행하였다.

(2) 李安九(2020)에서는 일본 국립대학 교양 한국어 수업의 수업 시수도 조사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64개교 중 1학년 교양 한국어 과목이 주 1회 수업으로 개설된 학교는 42개교로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며 주 2회 수업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11개교, 주 1회 수업과 주 2회 수업이 공존하는 학교는 9개교 정도이다. 이 밖에 1학기에는 주 2회 수업을 하지만 2학기에는 주 1회 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1개교)도 있으며 주 1회 수업과 주 3회, 주 4회 수업이 공존하는 학교(1개교)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대학의 한국어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오고시 나오키(1994)와 國際文化フォーラム(2005), 그리고 하세가와 유키코 외(2021)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선행연구의 경우, 1학년 수업 외에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쉽지 않다. 오고시 나오키(1994)와 國際文化フォーラム(2005)에서는 학교 수가 아닌 과목 수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1993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오고시 나오키(1994)에서는 주 1회 과목이 46.0%, 주 2회 과목이 38.2%로 주 1회 과목이 약간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2003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國際文化フォーラム(2005)에서도 4년제 대학의 주 1회 과목이 74.5%, 주 2회 과목이 22.7%로 주 1회 과목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특히 국립대의 경우에는 주 1회 과목의 비율이 84.5%로 좀 더 높았다. 그리고 하세가와 유키코 외(2021)에서 조사된 4년제 대학 교양 과정의 최소 학점 수를 살펴 보면 주 1회 15주 수업인 1학점 과정이 13개, 1년간 주 1회 수업을 듣는 2학점 과정은 29개, 그리고 주 2회 수업을 1년동안 듣거나 주 1회 수업을 2년에 걸쳐 수강하는 4학점 과정의 수는 20개로, 주 1회 수업이 더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교양 한국어의 최대 학점 수는 2학점과 8학점 과정이 각각 13개, 4학점이 9개 과정이며 기타 6학점, 10학점, 12학점 과정이 각각 4개로 조사되었다.

(3) 교재에서 학습 항목으로 다루어지거나 예문에서 쓰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명 없이 목록에 제시되지만 하거나 특정 표현의 일부로만 쓰이는 경우(예를 들어 조사 ‘이라고’가 ‘이라고 합니다’의 형태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빈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비교 대상으로 살펴 본 한·미·중의 교재에서 쓰이는 조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	(1) 은, 이다 > 이 > 의 > 하고 > 을 > 예 1, 에서 1 > 도 > 예 2 > 부터, 까지 > 예 3, 으로 1 (2) 으로 2 > 에서 2 > 이나 > 에게, 한테, 께
하와이대	(1) 은, 이다, 도 > 이 > 을 > 예 1 > 하고 > 의, 만 > 에서 1, 예 2 > 으로 1 > 에서 2, 까지 (2) 으로 2 > 한테, 한테서, 께, 과 > 께서 > 이나, 밖에, 부터 > 이랑 > 예 3 > 보다
북경대	이다, 은 > 을, 예 1, 에서 1 > 과, 하고 > 이 > 예 2, 부터, 까지, 에게, 한테 > 의, 도, 만 > 께서, 께 > 으로 1, 에서 2 > 보다 > 이나 > 으로 2 > 에게서, 한테서

(5) 하세가와 유키코·이수경(2002)에서는 한국 교재에서 ‘에’를 몇 번으로 나누어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아마도 영어와 비교할 때 여러 개의 전치사에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였는데, <하와이대>에서 ‘장소’와 ‘도달점’, 그리고 ‘시간’의 ‘에’에 대하여 제시한 영어 뜻풀이를 보면 각각 ‘in, at, on(indicates a static location)’, ‘to(destination)’, ‘at, in, on(time)’으로 되어 있어 ‘에’의 용법에 따라 해당 영어 전치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6) 한·미·중의 교재에서 쓰이는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양상은 아래와 같다. 이 중 <하와이대>는 ‘-겠-’을 ‘추측’과 ‘의도’로 나누어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어 특징적이다.

서울대	(1) [이에요] > [아니에요] > [있어요], [없어요] > -으세요 1 > -어요 > -었- > -을까 (2) -으세요 2 > -는데 > -지
하와이대	(1) [이에요] > [아니에요] > -어요 > -으세요 > -었- (2) -지 > -습니다, -습니까 > -으시- > -는데 > -을래 > -을까 > -겠 1- > -네 > -을게 > -겠 2-

북경대	-습니다, -습니까 > -으십시오, -으세요, -읍시다 > -었- > -어요 > -을래, -겠- > -을까 > -으시- > -지, -는데
-----	--

(7) 한·미·중의 교재에서 쓰이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하와이대>와 <북경대>에서는 ‘-어서’를 ‘이유’와 ‘계기’의 용법으로 나누어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었으며, <하와이대> 2 권에서는 전성어미 ‘-기’를 도입하였다.

서울대	(1) -고 1 (2) -고 2 > -은(A) > -으면 > -는 > -지만 > -으러 > -어서 > -거나 > -으면서
하와이대	(1) -으러 > -고 (2) -은(A) > -지만 > -는데 > -어서 1, -는 > -어서 2 > -은(V) > -게 > -으면서, -을 > -기
북경대	-으러 > -고 > -어서 1 > -는, -은(A) > -으면 > -다가 > -어서 2, -게, -으려고 > -으려면, -은(V), -을

(8) 비교 대상으로 살펴 본 한·미·중의 교재에서 쓰이는 표현 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대	(1) 이 아니다 > (안) (2) -어 보다 > [-을 것이다] > -지 않다 > (못), -고 싶다 > -어 주다 > -어야 되다 > -을 수 있다/없다, -지 말다 > -을 때 > -어도 되다, -으면 안 되다 > -고 있다
하와이대	(1) 이 아니다 > (안), (못) > [-을 것이다] (2) -고 싶다, -고 싫어하다 > -고 있다 > -어 주다, -어야 하다 > -지 못하다 > -지 말다 > -을 수 있다/없다 > -고 나다 > -어 보다, -기 때문에 > -어 드리다, -지 않다
북경대	(안), -지 않다 > [-을 것이다] > -고 싶다 > -은 후에, -은 다음에, -기 전에 > -어/아야 하다/되다, -지 말다 > -어 주다 > -고 있다 > -어 보다 > 이 아니다 > (못), -지 못하다

(9) 하와이 대학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어 수업 실라버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학기당 주 4 회 50 분 수업이 16 주간 이루어지며(총 53.3 시간), 학기당 한 권의 교과서를 학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경대>의 경우,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하여 시간당 항목 수 역시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10)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일본의 외국인 교육이 효율적 학습을 위해 문법과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오고시 나오키(2016)에서는 1980 년대 말 이후의 대표적 교재들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을 시기별로 검토하였는데, 최근의 교재들은 예전에 비해 문어체에 관한 항목이 없어지고 대화와 독해를 모두 가르치는 내용에서 대화 중심의 내용으로 변화했으며 다루는 항목 수도 감소하였음을 고찰한 바 있다. 오고시 나오키(2016)에서는 문법 항목이 줄어든 원인 중의 하나로 수강자의 의욕·학력 저하를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문법과 독해 중심에서 대화 중심의 내용으로 변화했다는 점 역시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11) 본고에서 제안한 입문 교재의 문법 항목을 <국제> 1 급과 비교해 보면, <국제> 1 급의 조사 중 ‘이랑’과 ‘만’이 제외되었으며 <국제> 2 급 조사인 ‘께’, ‘에게서’, ‘한테서’가 추가되었다. 종결어미는 <국제> 1 급의 ‘-읍시다’, ‘-으십시오’, ‘-고’ 대신 <국제> 2 급의 ‘-네’와 ‘-지’를 더하였고, 연결어미는 <국제> 1 급의 ‘-으니까’와 ‘-으려고’를 제외하였으며, 표현으로는 <국제> 1 급의 ‘-어야 되다’, ‘-기 전에’, ‘-은 후에’ 대신 <국제> 2 급의 ‘-어 보다’, ‘-어 주다’, ‘-지 말다’를 포함시켰다. <국제> 1 급에서 제외된 것들은 대부분 <한글> 4 급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조사 ‘이랑’과 종결어미 ‘-고’는 <한글> 4, 5 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것 중 종결어미 ‘-지’는 <한글> 5 급의 항목이며, 조사 ‘께’, ‘에게서’, ‘한테서’, 종결어미 ‘-네’, 표현 항목 ‘-어 주다’, ‘-어 보다’, ‘-지 말다’는 <한글> 4 급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永原歩·尹亭仁(2012)에서는 조사 대상 10 종의 교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본고에서 제안한 (14)와 비교해 보면 조사 ‘과’, ‘의’나 활용어미 ‘-으세요’, ‘-으시-’, ‘-고’, ‘-으러’, 그리고 ‘(안)’, ‘-지 않다’와 ‘-고 싶다’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조사 대상 10 종 중 5 종 이상의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밖에 5 종 이상의 교재에서 쓰이는 문법 항목으로는 ‘출발점’으로 쓰이는 ‘에서’, ‘에게’, ‘한테’, ‘-지’, ‘-겠-’, ‘-지만’, ‘(못)’, 그리고 ‘ㄹ’ 탈락이 포함되어 있다. 永原歩·尹亭仁(2012)에서는 이화여대와 경희대의 한국어 초급 교재도 조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한일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한국의 교재는 말하기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습 시간도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 참고 문헌 >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36.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121.
- 김중섭(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민현식(2009), 한국어교육용 문법 요소의 위계화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61-130.
- 방성원·김제열(2021),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문화사.
- 오고시 나오키(1994), 일본에 있어서의 Korean language 교육의 실태 조사, 《한국어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1-284.
- 오고시 나오키(2016), 일본 대학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의 변화-교과서의 문법 항목의 변화에 주목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안구·남윤진(2019),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한국어 교재의 개발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국문화교육연구》 4,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계 한국문화교육중심, 123-141.
- 하세가와 유키코·이수경(2002), 한일 한국어 교재의 문법 실러버스 비교 분석 : 일본 학습자를 지도하는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7-278.
- 하세가와 유키코(2019), 일본 내 한국어 교육의 역사 및 사회적 배경과 일본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의 특징, 《한국문화교육연구》 4,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계 한국문화교육중심, 7-25.
- 하세가와 유키코 외(2021),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최종 보고서》,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분과회.
- 李安九(2020), 日本の国立大学における初修外国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現状-ウェブ公開のシラバスからの考察-, 《教育研究紀要》 5, 岡山大学全学教育・学生支援機構, 220-239.
- 国際文化フォーラム(2005), 《日本の学校における韓国朝鮮語教育-大学等と高等学校の現状と課題-》, 公益財団法人国際文化フォーラム.
-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2022), 《「ハングル」検定公式ガイド合格トウミ(改訂版)初級編》,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 永原歩·尹亨仁(2012), 日本における韓国語テキストについて-大学での教材を中心に-, 《神奈川大学言語研究》 34, 神奈川大学言語研究センター, 95-132.